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2019년 12월 발족한 연대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국회, 경제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법무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제 목 [취재·보도협조]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날 짜 2023.11.6. (월)

취재·보도협조요청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전년 보다 59.1조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까지 부족한 국세 수입은 매일 평균 5.9조원 늘어 이미 47조 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47.6조원의 세수 감소가 법인세 20.2조 원, 소득세 13.9조 원, 부가가치세가 6.4조 원, 관세 2.8조 원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기저효과,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3.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

특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 사회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토론 :
 - 권오현 송의여대 교수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선임차장